

# 「NHI-Live」발간 기사 목록

vol.37

| 구성            | 주요내용   |
|---------------|--|
| NHI Inside(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도 교육운영계획<br/>- 2020년 교육운영방향 및 계획</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제28기 고위정책과정 입교<br/>- 통찰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략적 국정리더 양성</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급 민간경력 채용자, 공무원으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한다.<br/>- 2020년 제65기 신입관리자 경채과정 입교식 개최</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교육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br/>-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 온라인 교육 실시</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지만 괜찮아, 실시간 온라인 교육 이상무</li> </ul>  |
| NHI News(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레니얼 공무원이 원하는 과장의 모습을 그리다<br/>- 신입 과장을 위한 역량 학습교재 개발</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기반 공무원 맞춤형 학습서비스 강화<br/>- '나라배움터 2020년 이러닝 서비스' 제공</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재원,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지정<br/>-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지정 14일의 기록</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재원,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 운영 및 점검회의 개최</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를 열어가는 국가인재 교육의 산실이 되다<br/>-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설립 71주년</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대응 NHI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사례 공유</li> </ul>                                    |
| NHI Column(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기와 독감·폐렴 그리고 코로나19의 차이, 그것이 알고 싶다<br/>-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의 생성에서 소멸까지</li> </ul>      |
| 기 타(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를 더 스마트하게 해주는 Self 인재개발 퀴즈</li> </ul>  |

## 2020년도 교육운영계획

2020년 교육운영방향 및 계획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국가공무원 교육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국가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① 국정성과 창출 지원, ②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 ③ 유능한 공직자 양성, ④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대, ⑤ 공공HRD 허브 기능 강화 등 5대 인재개발전략에 기반 한 2020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비전

좋은 인재개발, 따뜻한 인재원

미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국가핵심인재 양성

인재  
개발  
전략

- |   |   |
|---|---|
| 「국정성과 창출」<br>지원을 위한<br>국정철학·공직가치<br>내재화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혁신·공정 가치 확산을 통한 국정운영 지원</li> <li>2 범정부적 통찰력 제고 및 공직자세 확립</li> <li>3 적극행정 전파 센터로서 역할 수행</li> <li>4 시대 변화에 맞는 공직자상 확립 및 가치교육 연구</li> </ol>     |
| 「4차산업혁명시대」<br>선도를 위한<br>정책대응역량 강화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4차산업혁명시대 정책대응역량 제고</li> <li>6 단기집중과정 운영을 통한 미래 대응역량 향상</li> <li>7 나라배움터를 통한 공직자 역량강화</li> </ol>  |
| 「유능한공직자」<br>양성을 위한<br>직급별 핵심역량<br>개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관리자 리더십 강화를 통한 국정 핵심리더 양성</li> <li>9 신규자 공직자세 및 직무역량 강화</li> <li>10 현업활용도 높은 교육을 위한 다양한 기법 도입</li> <li>11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내실화</li> </ol> |
| 「행정한류」<br>확산을 위한<br>글로벌 교육·<br>네트워크 확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 현장적합형 글로벌 역량교육체계 구축</li> <li>13 외국공무원 교육 확대·체계적 수료생 관리</li> <li>14 글로벌 공공HR 허브 역할 및 위상 강화</li> </ol>  |
| 「공공HRD 허브」<br>역할 제고를 위한<br>역량 강화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 공공HRD R&amp;D 허브 역할 강화</li> <li>16 공공HRD분야의 표준모델 정립</li> <li>17 HRD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역량 강화</li> </ol>                                    |

첫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국정철학 공유 및 공직자세 확립을 통해 국민이 국정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감수성, 규제혁신, 공직가치 등 시책 전문과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적극행정 전파센터로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행동변화를 선도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는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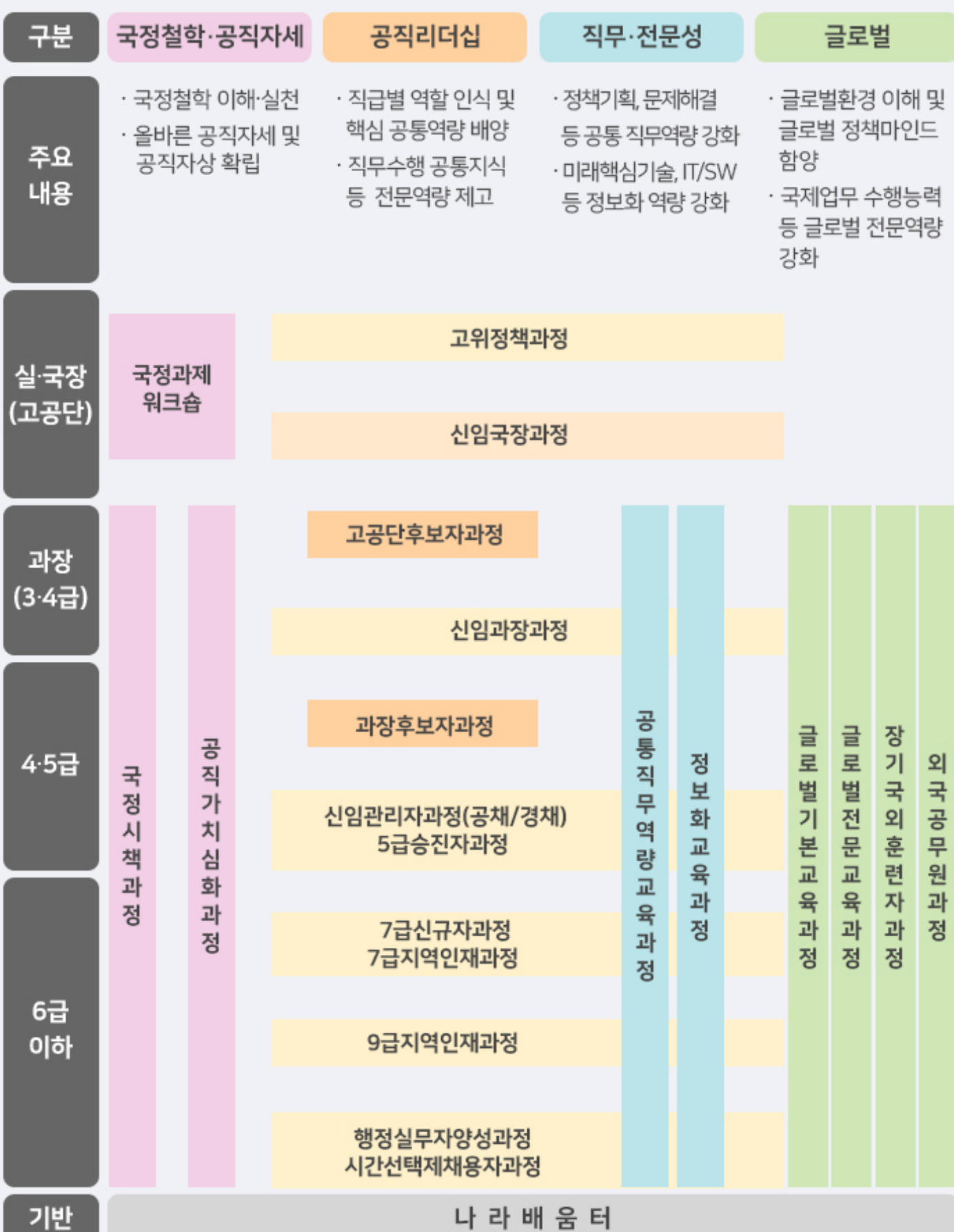
둘째,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고 대응하기 위해 AI교육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전 교육과정에 미래예측·대응, 코딩,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을 직급별·수준별 과정으로 편성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공직자들의 정책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협업과 소통역량을 갖춘 유능한 공직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하였다. 토론 등 참여형 교육을 확대해 학습내용 체화 및 부처 간 이해·협업기반을 마련했고,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기획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기법(리빙랩, 문제기반학습 등)을 확대했다. 더불어,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실제 정책 과정 전반에 대한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정책보고서 등에 대한 실습-FT(촉진자)피드백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넷째,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행정한류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외국과의 교류 확대를 글로벌 역량이 나날이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품질을 제고하여 실습 중심의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신남방·신북방정책 중점 협력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교육훈련기관과의 네트워크도 더욱 공고히 구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HRD 허브기능의 강화'이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선도기관으로서 각급(각 부처, 지자체) 공무원 교육기관에 최신 교육 콘텐츠·방법론을 전파하고, 맞춤형 HRD혁신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훈련기관, 학계, 연구원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공공 HRD 전문성 제고, 표준 모델 정립 등 공공 HRD 허브기관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2020년 교육체계



※ 나라배움터 : 언제/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공무원 이러닝 통합플랫폼

※ 공직 리더십 파이프라인 : 신임관리자과정(5급) - 신임과장과정 - 신임국장과정 - 고위정책과정에 이르는 경력단계별 기본교육체계

올 한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020년 교육운영계획을 토대로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가 만드는 변화가 교육받은 이들을 통해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국가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제28기 고위정책과정 입교

통찰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략적 국정리더 양성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전략적 국정리더 양성을 목표로 정부 각 부처 국장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등이 참여, 1년간 운영되는 「제28기 고위정책과정」 입교식을 18일에 개최하였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 45명과 공공기관 임원급 19명 등 모두 64명이 참여하였으며, 입교식에는 황서종 인사혁신처 처장, 박춘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참석하였다.



[인사혁신처장 환영사]



[국가인재원장 입교사]



[입교식]



[현충원 참배]

고위정책과정은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정책전반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통찰력을 갖춘 중추적 국정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1993년 시작하여 3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인재원의 대표 교육과정으로 범부처간 협업, 다양한 분야의 강의 및 현장학습, 연구 활동과 사회공헌활동 등의 학습을 통해 전략적 국정리더 양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올해 과정에서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한 「미래전략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미래정책 설계역량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부처 관련 현안과제에 대한 팀별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정책을 고찰하고 부처간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강의와 연계한 현장학습, 사회공헌 활동, 외국공무원과의 협력포럼, 특히 신입관리자(5급 공채)과정의 멘토로 참여하는 등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정리더에게 필요한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춘란 원장은 입교식에서 “개인의 발전을 넘어, 정부의 핵심 인재로 거듭난다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43주를 후회없이 사용하여 주실 것”과 “지난 공직생활을 뒤돌아 성찰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온 동료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학습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전문가가 되시길 희망한다.”며 입교식을 마무리했다.

이날 입교식을 마친 교육생들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43주간의 교육과정을 시작하였다.

## 5급 민간경력 채용자, 공무원으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한다.

2020년 제65기 신입관리자 경채과정 입교식 개최

민간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58명의 예비사무관들이 기본 교육을 시작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지난 2월 17일 제65기 신입관리자 경채과정 입교식을 열고, 4월 17일까지 9주간의 교육을 시작했다.



[ 제65기 신입관리자과정(경채) 입교식 ]

박춘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과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 등이 참석한 입교식은 새롭게 공직의 길에 선 예비사무관들이 공직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교육생 스스로 사전에 촬영한 '다짐 영상'을 서로 공유하고, '공무헌 헌장'을 낭독하는 등 공직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박춘란 원장은 입교사에서 "국민의 봉사자라는 소명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하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며, 조직생활에서도 배려하고 협력하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환영사에서 "중앙부처 사무관으로서 올바른 공직관을 갖고, 적극행정 실천에 힘써달라."고 주문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거시적 안목과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섬세한 감수성을 함께 키워줄 것"을 강조했다.



[ 입교사 중인 박춘란 국가인재원 원장 ]



[ 환영사 중인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 ]

입교식을 마친 후에는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이번 교육과정의 시작을 열었다. 현충원 참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직자의 일원임을 일깨우는 동시에 무거운 공직의 책임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번 기수의 자치회장을 맡은 권숙현 교육생은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임을 잊지 않겠다'며, '지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제도개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최고의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심지섭 교육생 역시 '컴퓨터 분야 지식과 변호사 자격이 정보통신 분야 전문성의 바탕이 되어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 제65기 신입관리자과정(경채) 현충원 참배 모습 ]

이번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신임 사무관 양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3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다.

첫째로 민간경력자가 공직의 신규자로 들어오는 만큼, 무엇보다 올바른 공직자세를 갖추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입교 첫해 주부터 공직가치를 내재화하는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금년에는 새롭게 게이미피케이션 기법을 도입하여 교육생들의 교육몰입도를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적극행정 등 국민이 요구하는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함양하고, 포용·혁신·공정 등 주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세미나, 토론 등 참여형 학습들이 진행된다. 아울러, 처음 1주일 간은 선배 공무원(4명)이 FT(피어리터)로 참여하여 학습 활동을 지도하고 공직 경험을 공유하는 등 멘토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정책역량을 강화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기술과 그것이 가져올 시대변화를 이해하는데 디딤돌이 될 강의와 실습이 진행된다.

또한, 중앙부처 사무관에게 필수적인 정책역량을 현업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과정의 이해 및 실습"이라는 교과를 새롭게 기획하여 도입하였다. 총 4차례 부처별 정책담당자가 출강하여 직접 생생한 정책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그 과정의 쟁점들을 상호 토론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심층적으로 학습한다. 그런 후, 실제 정책사례를 기반으로 직접 정책보고서를 작성해 보고, 전직 국장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등 임용 후 바로 사무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업의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게 교육을 구성하였다. 다양한 부처에 배치될 동료들 간의 토론과 팀별 과제수행을 통해 조정 및 협상 역량을 키우고, 일·가정 양립과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 등에 따른 조직 내 성별·세대 간 소통역량을 향상시키는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교육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각기 다른 배경을 지닌 교육생들이 서로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1명씩 자유주제로 강연을 하는 'NH TED'를 매일 운영하고,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 학습을 지원하며, 스스로 학습동아리를 결성·운영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교육생과 출강강사를 대상으로 예방수칙과 행동요령을 교육·안내하였으며, 인재원 내 손소독제, 체온계, 마스크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청소와 소독 등을 강화한다. 교육생 및 출강 강사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 증상 등)도 매일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2차례 이상 실시하고 있다.



### <예방 및 조치단계>

**정기검사**

• 일1회(아침9시) 체온검사

↓

**수시검사**

• 방문검사: 의무실(02-500-8600, 보물관1층) 유선 연락 후 방문 진행

• 자가검사: 문입실 내 비커빈 체온계 사용

↓

**이상징후 발생 시**

• 교육운영팀 및 의무실(감염증상신고센터)에 유선신고 → 마스크착용 후 의무실 방문 검사

• 신별진료소 혹은 질병관리본부(1339) 신고 후 조치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기 체온검사 및 대응 체계 ]

9주간의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는 26개 부처에서 사무관 시보로 임용되어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 공무원 교육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 온라인 교육 실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이음' 등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시작했다.



[ 실시간 온라인 교육 모습 ]

코로나19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시작된 5급 승진자 과정(2.17.~3.27, 201명)과 신입관리자 경력채용 과정(2.17.~4.17, 58명)은 집합교육을 중단하고 지난달 25일부터 기존에 녹화된 강의를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녹화된 강의로는 교육 몰입도나 효과성 등에 한계가 있어 지난 9일부터는 실시간스트리밍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면 전환했다. 교육은 강사가 국가인재원 진천본원과 과천분원에 임시로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고 교육생들은 자택 등에서 실시간으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교육생들이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질의, 토론, 발표 등의 교수기법을 적극 활용해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사전 제작된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이 아닌 실시간 쌍방향 소통에 기반을 둔 온라인 교육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며, "이번 운영 결과를 분석해 향후 공무원 이러닝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실시간 온라인 교육 시작 시 원장님 당부말씀 모습 ]

## 코로나19지만 괜찮아, 실시간 온라인 교육 이상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말이 있다. 요즘은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대응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의 신속한 움직임이 그렇다.

지난 2월 23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하였다. 국가인재원도 교육생의 안전과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집합교육으로 진행 중인 3개 과정을 교육생이 나라배움터에서 기존에 녹화된 강의를 인터넷으로 수강하도록 신속히 조치하였다. 한발 더 나아가 3월 9일부터는 교육생의 교육 몰입도와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실시간 스트리밍 시스템에 기반 한 온라인 교육으로 전면 전환하였다.



[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 교육 모습 ]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는 모든 강의를 온라인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함에 따라 국가인재원이 보유한 기존 스튜디오만으로는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점이였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했던가? 임기응변의 지혜를 발휘하였다. 강의실에 PC와 카메라를 설치하고, 전자칠판과 간이조명을 공수하여 배치하였다. 방송용 전문 스튜디오는 아니지만,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임시 스튜디오가 마련되었다. 온라인 강의를 수 없이 해보신 베테랑 강사들도 강의실 스튜디오는 처음이라고 하면서도 소박하지만, 갖출 것 다 갖춘 임시 스튜디오에서 최선을 다해 강의해 주셨다.

일주일여 지나 어느 정도 실시간 온라인 강의체제에 익숙해질 무렵. 산 넘어 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급증하고, 초·중·고 및 대학교 개학이 재차 연기되었다. 예상치 않게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위해 이용해 오던 온나라-e음 시스템의 안정적 사용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다. 그간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네트워크 상황을 미리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온나라-e음의 활용현황과 사용자 증가추세가 예사롭지 않았다. 최대 허용 동시 접속자수가 450명으로 제한되는데, 일일 동시접속자수가 한계치까지 증가하였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일부 교육생의 경우, 실시간 온라인 교육 중에 영상이 끊기거나 강제로 튕겨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곤 하였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꼭 기존의 업무망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온나라-e음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의 실시간 온라인 영상강의 플랫폼을 수소문하였다. 신뢰도와 안정성,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Zoom과 구르미라는 스트리밍 시스템을 발굴하였다.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하여 보안상의 문제는 없는 지 확인하였고, 교육생들이 참여하는 수 차례의 모의 강의를 통해 안정성을 테스트하였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온나라-e음의 네트워크 부하 상황을 체크하고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 고위정책과정, 신임관리자과정, 5급승진자과정을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국가인재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실시간 영상강의로 인한 네트워크 영향도를 계속하여 분석하고 있다. 플랫폼별 허용 가능한 동시접속자수, 최근 2주간 접속자 수, 대학 등 다른 기관들의 사용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 교육생의 온라인 강의 접속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코로나19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운영진이 공백 상태를 맞을 수 있는 상황에도 대비하였다.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예방적 차원에서 직원들이 대거 자가격리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예상일 같지 않았다. 이에 직접적인 교육운영부서 이외에 나머지 기획·지원·연구개발 3개 부서의 직원 58명을 플랫폼 운영 지원 예비인력풀로 편성하였다. 예비인력 대상자에게는 플랫폼 운영매뉴얼과 플랫폼 운영실습 동영상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지난 3월 23일까지 실시간 온라인교육 플랫폼(Zoom, 구르미) 강의현장을 참관, OJT방식의 교육을 실시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교육운영진을 대신해 교육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 OJT(on-the-job training) : 직무수행과 병행하는 교육훈련

지난 한 달여 간 코로나19로 많은 변화와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모두가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국가인재원의 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왔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멈춘 듯하지만, 국가인재원의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인재 양성에 대한 열정은 잠시도 멈출 수 없다.

## 밀레니얼 공무원이 원하는 과장의 모습을 그리다

신임 과장을 위한 역량 학습교재 개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은 '20년 1월 16일 신임 과장을 위한 온라인 역량 학습교재 '신임과장의 한 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 밀레니얼 세대의 사회진출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신임 과장급 관리자가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 밀레니얼 세대: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 출생한 세대

이 교재는 신임 과장 스스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영상, 역량교육 사례, 심화학습자료, 설문 결과, 자가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

### '신임과장의 한 수' 구성

#### ① 인포그래픽 영상(3분): 과장급 역할과 책임의 변화에 대한 이해



#### ② 관리자 역량교육 콘텐츠: 실제 사례(5개) 기반으로 구성, 심화학습 콘텐츠 정보 제공

첫번째 고민

고민상담소에 도착한 P과장의 팀원 성과관리 관련 고민입니다.

**Q** 아이디어는 많으나 실행력이 떨어지는 과원 때문에 고민입니다.

저 역시 몇 번 일을 하다 보니 믿고 맡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영우가 절대 중요한 업무는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깐1** 그런 친구들이 있죠. 사람 좋기로 참 유명한데, 사실 업무적으로 효율이 정말 없어서 답답하기 짝이 없죠. 저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 보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이디어는 많다고 했으니 그 부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잠깐2**

#### ③ 에필로그: 신임사무관의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반영한 우수 사례 소개 등

Good Case 2.

아주 칭찬해~~

사소한 것도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과장님♥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빨리 해결해주셨어!"  
 "오늘 고생 많았지?"  
 "OO사무관 덕분에 내가 일할 맛이 나네!"  
 "이런 건 어디서 배웠어? 인가르쳐도 아주 좋겠네~!"

**과장님의 칭찬과 인정을 먹고 무력무력 자라는 사무관들이랍니다.**

UP  
자신감

#### ④ 자가 체크리스트: '밀레니얼 공무원과 일 잘하는 법' 점검

✓ 의사결정 논의 보드라 지금 하는 정책의 현실성 같은 거 따져서하고 알고 인도는 거 우선에서 내려오 하는 거

✓ 고려해서 일이 잘못 되었을 때 사무관 잘하는 과장님

✓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도 없고 본인 승진에만 눈이 멀어서 아랫사람들 시해서 자기성과같이 보일 뽐뿌만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

이거 읽고 감히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 과장님

N차 회식/커피 타임은 하면서 과원들과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과장님

본인이 잘 필요 없는 담당자 관리출장을 끌라서 가는 과장님

쓰고 고치는 두번반복 훈련 시키면서 사감을 빙글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장님

① 밤들(기쁜, 기쁜) 앞에서 부서원에게 화내는 과장

② 자기 따름을 부서원에게 푸는 과장

③ 안되도 되게 화내는 과장

④ 보고 등이 자기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인신 공격하는 과장

의뢰, 기재부 등 외부에 인입도 빙글 못하고 달라다가 돌아와서 과 원 들 옆에 쫓겨나고 화내는 과장님

자기만 흥 쟁겨주는 과장님 없다고 생각하는 과장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과장님

자나깨고 일에 몰입해서서 '처럼 살면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과장님

잘되면 자기탓

잘못되면 부하탓 하는 과장

주말근무를 당해서 야기는 과장

남달 안들은사람.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과장

\* 국가인재원 누리집(www.nhi.go.kr-커뮤니티-새소식),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메인/또는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가능

먼저, 인포그래픽 영상을 통해 과장급이 갖춰야 할 미래 역량과 역할 및 책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신임 과장이 필요로 하는 5개 역량\*별 교육 콘텐츠는 적극행정 등 최근의 정책 환경변화와 직급별 심층인터뷰 결과 등을 반영했고, 역량별로 '선배 과장의 팁, 바람직한 과장의 모습' 등을 통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역량을 성찰하도록 했다.

\* 과장급 미래역량: 시스템적사고, 성과관리, 조직관리, 팀워크관리, 이해관계조정

특히 실제 각 부처 밀레니얼 신임사무관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과장' 등으로 사례별 시각화해 현장감 있게 표현했고,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밀레니얼 공무원과 일 잘하는 법'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인재원은 이 교재를 국가인재원 누리집 및 온라인 교육 누리집인 나라배움터 등을 통해 공개 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49개 기관 등 각 부처에 배포 하고 개별 학습자의 역량자기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과장급 2,121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1:1전달서비스(1.29.) 하였다.

한편 제 54기 신임과장과정(3.3.~3.6.) 부터 '신임과장의 한 수'를 사전이러닝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온·오프라인 교육과 연계를 통해 교육효과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 '신임과장의 한 수' 나라배움터 메인페이지

나라배움터

로그인 회원가입 학습자용 사이트맵 ENGLISH

나의 강의실 정규과정 테마과정 공동활용기관 나라배움터

배움으로 통하다 채움으로 설လာ다  
나라배움터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신임과장의 한 수

밀레니얼 공무원, 그들이 원하는 과장은?

RESPECT

나의 강의실 교육신청

어학클래스 마이크로러닝

전자책 K-MOOC

국가인재원 입문과정

전문과정 연계이러닝

커뮤니티 지식 Q&A

외부학습자료 블로그

전체보기 신규과정 인기과정 직무/관심과정 외부학습자원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부서장으로서 첫 관문인 신임 과장은 다양한 세대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조직을 관리해야 하므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역량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역량은 공무원의 역량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가인재원은 관리자들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디지털 기반 공무원 맞춤형 학습서비스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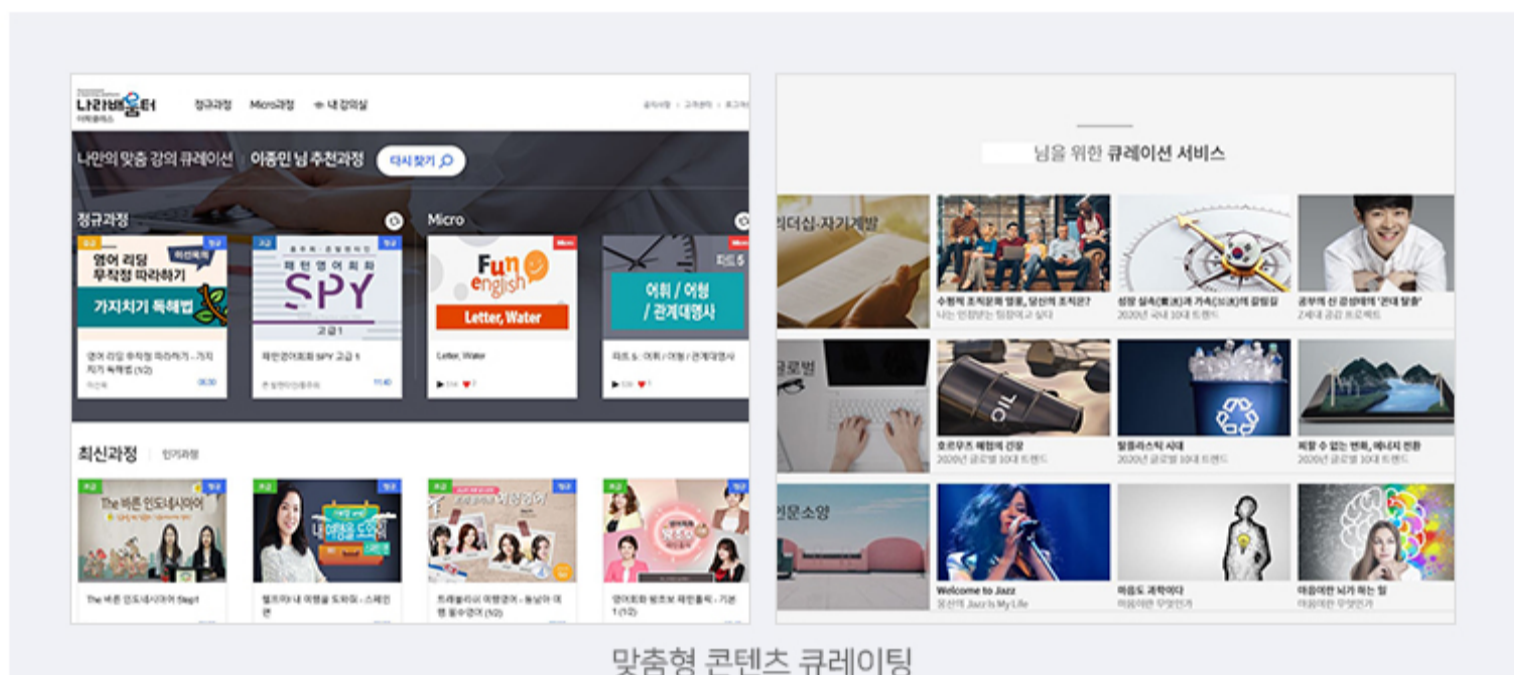
'나라배움터 2020년 이러닝 서비스' 제공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수요자 맞춤형의 '나라배움터 2020년 이러닝(https://e-learning.nhi.go.kr) 학습서비스'를 시작했다. '나라배움터'는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국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스마트러닝 플랫폼으로, 공직가치, 직무 과정은 물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외국어, 인문강의 등을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내 손 안의 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밀레니얼 세대의 증가 등을 고려해 개인 맞춤형 학습(큐레이팅) 및 전달체계 강화, 콘텐츠 자체 개발 확대, 온-오프라인 교육 연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첫째, 콘텐츠 큐레이팅 서비스를 강화해 학습자의 직무분야, 학습과정, 선호도 등 학습정보를 분석해 직무와 개인 관심분야에 대해 맞춤형 학습 과정 또는 콘텐츠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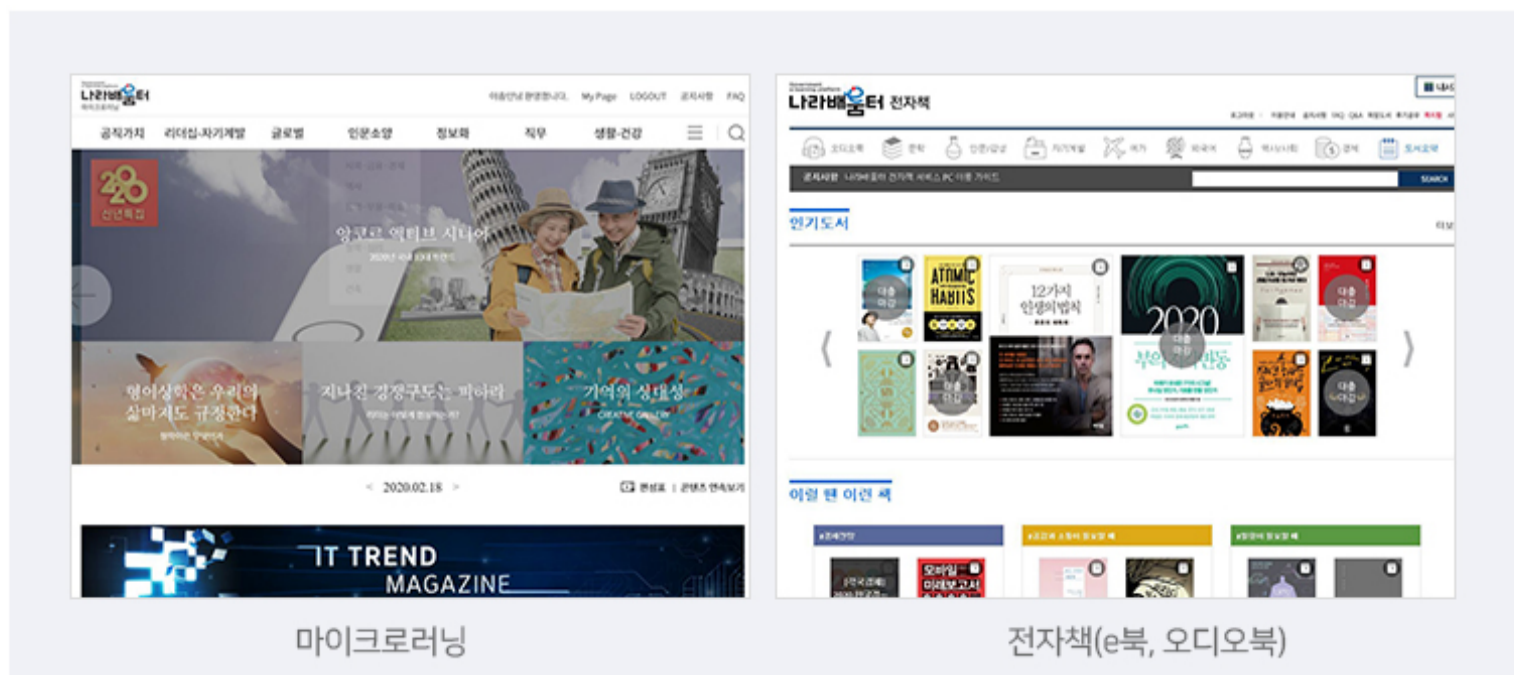
맞춤형 콘텐츠 큐레이팅



둘째, 국가인재원의 콘텐츠 자체 개발을 확대해 공직에 특화된 다양한 콘텐츠를 적시에 제공한다. 적극행정, 인공지능(AI) 등 정부 주요 시책과 공직 직무분야의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제작기간 단축 및 적기 제공을 통해 정부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 교육을 확대해 미래에 대비한 공무원 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인공지능(AI), 코딩, 빅데이터 분석·활용 등 온라인 과정 운영 및 오프라인 과정과 연계한 체험·실습을 통해 공무원들이 디지털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미кро러닝(Micro-learning, 5분 이내 짧은 학습 영상)과 전자책(e-book), 오디오북을 확대 제공하고, 매거진, 카드뉴스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디지털에 익숙한 밀레니얼 공무원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하도록 지원한다.



미кро러닝

전자책(ebook, 오디오북)

박춘란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변화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나라배움터가 포용·혁신·공정 등 국정철학에 대한 공직내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에 헌신·봉사하는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학습 플랫폼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가인재원,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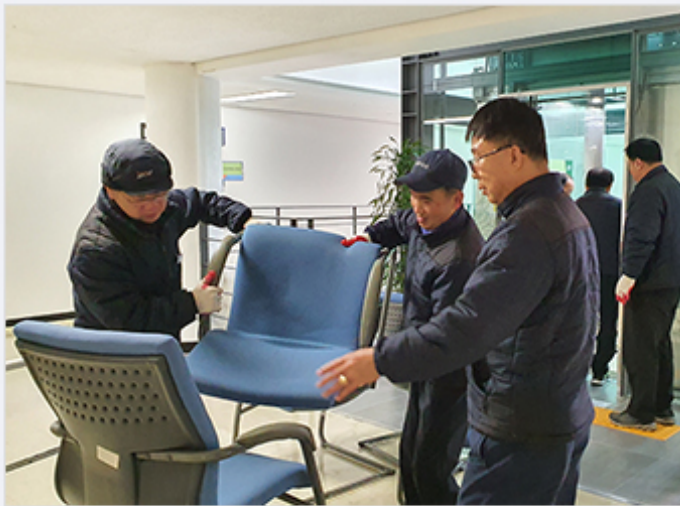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지정 14일의 기록

지난 1월 31일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로 봉쇄조치된 중국 우한에 전세기를 투입하여 총 701명의 교민들을 철수시켰다. 귀국 후 우한 교민들은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머물렀다. 이 중 173명의 교민들이 국가인재원에서 생활하였으며, 마침내 2월 15일 전원 무사히 퇴소하였다.



[ 국가인재원에서 퇴소하는 우한 교민들과 그들을 환송하는 모습 ]

그동안 국가인재원은 임시생활시설로서 교민생활지원, 외부접촉 차단 및 방역관리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긴급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국가인재원은 임시생활시설을 지원하는 업무와 교육과정을 운영·지원하는 업무로 나누고, 각각 진천과 과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우한 교민이 머물던 2주 동안 진천캠퍼스에서는 박춘란 원장을 비롯하여 30여명의 직원들이 24시간 비상체제로 난방, 수도, 전기 등의 시설 운영을 지원하였고, 과천캠퍼스에서는 교육일정과 장소 등을 조정하여 주요 교육과정인 5급 승진자과정은 과천으로, 고위공무원단·과장후보자과정 등은 세종으로 옮겨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였다.



[ 임시사무실을 설치하는 분주한 모습 ]



[ 국가인재원 과천캠퍼스 임시사무실 모습 ]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지원을 도운 교육지원과 배중호 사무관은 "국가적인 재난위기 속에서 본연의 할 일을 했을 뿐이다."며 "지난 2주간 진천·음성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배려에 큰 감동을 받았고, 불편한 임시생활시설임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우한 교민들에게 감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수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가인재원은 이번 임시생활시설 지정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자체 비상대응매뉴얼을 보강하는 한편, 교육생 입교 시 개인 위생, 질병 증상 및 조치 사항 등을 안내하여 공무원들의 보건 안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국가인재원,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 운영 및 점검회의 개최



[ 국가인재원 코로나19 대응 1차 점검회의 모습 ]

-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총력 비상대응 태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공무원연재개발원(원장 :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도 자체 비상대응체계 운영(안)을 수립하고 3월 9일 16시 1차 점검회의를 가졌다.
- 국가인재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우선, 자체 상황반을 편성하여 일과 시간 중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총괄·관리해나가는 한편, 일과시간 후 당직근무 강화 지침을 시행하여 24시간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열화상카메라 설치, 방역소독 주기 단축 등 그간의 코로나19 예방 조치와 더불어 추가로 구내 식당 이용시 상호접촉 최소화를 위한 一자 또는 W자 좌석 착석 안내 및 통근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코로나19 상황 점검하는 박춘란 국가인재원장 ]

- 특히, 박춘란 원장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인재원의 교육운영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 교육생과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하여 건강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현재 실시 중인 나라배움터 이러닝 대체교육과 정부 영상회의 플랫폼 '이음' 등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또한, 질의, 토론, 발표, 실습 등의 교수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생들이 자택 등에서도 집합교육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내실 있는 교육운영도 당부하였다.
- 국가인재원은 앞으로 주2회 자체 코로나19 점검회의 운영을 통해 국가인재원 내·외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점검,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재정조기집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도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이 실시간 온라인 교육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 미래를 열어가는 국가인재 교육의 산실이 되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설립 71주년

오는 3월 20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개원 71주년을 맞았다.



국가인재원은 코로나 19로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기념식과 기념행사는 생략하였다.

국가인재원은 1949년 3월 국립공무원훈련원으로 설립된 이래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인재를 양성하는 산실이 되어왔다.

또한, 우즈베크, 몽골 등 신남방·신북방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외국공무원 교육과 세계 각국 공무원교육 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행정한류를 전파하는 글로벌 인적자원개발(HRD)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한편, 박춘란 원장은 서면으로 대신한 기념사에서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 및 추진 역량이 중요해졌다."며, "새로 도입한 '정책과정의 이해 및 실습' 등 현장 연계, 협업 중심의 교육 과정들이 국가인재원의 핵심 교육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국가인재원 71주년 기념사 전문>

- 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가족 여러분, 박춘란입니다.
- 어느덧 국가인재원이 7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비록 최근 발생한 갑작스러운 비상상황으로 직접 만나 함께 기념하지는 못하지만, 인재원 여러분들의 71주년을 기념하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크실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도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 지난 2월 함께 우한교민 지원을 위해 동고동락하며 수고해주신 진천관리팀을 비롯한 기획부 직원분들,
-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교육환경 변화에도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해주신 리더십개발부 직원분들,
- 전 세계적 비상사태 속에 타국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외국 공무원 교육에 차질 없도록 노력 중이신 글로벌교육부 직원분들,
- 재택근무 중에도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연구개발센터 직원분들,
- 그리고 질 높은 강의와 교육과정 연구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교수님들,
- 한 분씩 다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인재원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국가인재원 그간의 연혁과 성과>

- 우리 국가인재원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7개월만인 1949년 3월, 국립공무원훈련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 그간, 우리 국가인재원은 시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확산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인재를 양성하는 산실이 되어 왔습니다.
- 한국전쟁 후에는 폐허 속에서도 새롭게 선진 국가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외국어훈련담당관을 신설하고 해외파견훈련을 실시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 1981년부터 시작된 36년의 과천시대에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 대표적으로 국장급 대상 고위정책과정을 신설하여 신규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구제금융을 겪던 국난의 시기에도 공무원 사이버 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최신 지식을 갖춘 공무원 육성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정보화 시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200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21세기에 발맞추어, 교육과정의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 최초로 신입리더양성과정(5급 공채)에서 대통령 특강이 있었으며,
- 실습 위주의 교과목 개편·액션러닝의 도입·사례연구 등 현재까지 활용되는 교육기법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그리고, 2016년 1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같은 해 9월, 현재와 같은 충북혁신도시 진천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 이후, 진천본원, 과천본원, 그리고 제3의 캠퍼스인 나라배움터 이러닝 시스템 간의 긴밀한 연계 속에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고, 잘 해왔습니다.
- 이러한 전통과 저력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더 달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국가인재원의 역할>

- 오늘날, 사회는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AI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밀레니얼 세대의 사회 진출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공직자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육성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 국가인재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국가인재원은 개원 71년을 지나 100년을 바라보며, 다음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첫째,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협업과 소통역량을 갖춘 유능한 공직자를 양성하겠습니다.
- 교육에 임하는 공직자들이 포용·혁신·공정의 국정철학을 내재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는 공복(公僕)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하도록 공직가치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공직자들이 '현장중심의 정책역량'과 '소통에 기반한 협업역량'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정책기획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국가인재원의 핵심교육 콘텐츠로 발전해 나아가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 둘째,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 기본과정 내 4차산업혁명시대 통찰력 제고를 위한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이선 기초교육부터 머신러닝·딥러닝의 심화과정까지 단계별 맞춤형 단기집중과정을 마련하였으며,
- 미래예측기법의 실무적용 등 관리자급 교육모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모든 교육생들에게 미래대비역량 및 정보화역량을 확실하게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 또한 기존 4개 분야였던 정보화 교육에 더하여 신설된 'AI 아카데미'를 통해 정부의 AI 국가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셋째, 공무원 교육훈련의 선도기관으로서 공공 HRD 허브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기관은 우리 원의 교육운영 방침을 토대로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동시에, 온라인 쌍방향 교육으로 전환, 차질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다른 교육기관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 앞으로도 최신 HRD 트렌드를 정기적으로 발굴하여 참신한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법, 우수강사를 발굴·확산시켜 나가고,
- 공공HRD콘테스트, 관·학·연 인재개발협의회 운영 등 교류·협력도 강화해 공공 HRD를 선도하는 허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해 글로벌 행정한류 확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 신남방·신북방 정책 지원을 위한 중점협력국 교육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외국공무원 수료생과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 또한 글로벌 공공 HR 컨퍼런스, NH 리더스포럼 등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국내·외를 아우르는 공공 HRD 허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에서 공직가치와 사명감을 바탕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최전방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국민을 위해 행동하는 공직자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국가인재원의 역할입니다.
- 이를 위해,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닌, 교육을 이수한 공직자들이 교육 내용을 내재화하고 이를 현업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아닌, 그 효과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에서 교육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생들이 직무에 복귀했을 때 교육내용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참여·실습·체험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IT기술을 활용한 수업기법, 온/오프라인 연계교육 등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교육생들뿐만 아니라 원내 구성원들의 작은 소리 하나도 스쳐지나가지 않고 서로 귀 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의 국가인재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드는 변화가 교육받은 이들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 더 나은 공직사회,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국가인재원 모든 교직원 여러분!
-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비해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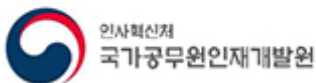
## 코로나19 대응 NHI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사례 공유

- 국가인재원에서는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대응하여 교육생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실시간 온라인교육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교육기관들의 벤치마킹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NHI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사례 설명자료 (FAQ)'를 정리하여 공유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가인재원은 공공 HRD 선도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목 차

#### 코로나19 대응 NHI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사례 설명자료(FAQ)

2020. 4.



#### I. 코로나19에 대응한 교육과정 조정

- 1.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따른 조치내용 ..... 1
- 2. 집합교육에서 이러닝으로 전환 ..... 6
- 3. 교육과정 조정 및 교육생 건강관리 ..... 7

#### II.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정 도입 및 준비

- 1. 온라인 플랫폼 검토 및 고려사항 ..... 8
- 2.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위한 물적·인적 준비 10

#### III. 효과적인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 1. 강사섭외 및 강의지원 ..... 13
- 2.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조치(TED, 분임운영) 14
- 3. 출결관리, 질의응답, 녹화 재사용 활용 ..... 16
- 4. 플랫폼 예비인력 풀 구성 및 운영 ..... 18

#### IV. 온라인 교육과정에서의 행사진행

- 1. 온라인 입교식 ..... 22
- 2. 온라인 수료식 ..... 24

## 감기와 독감·폐렴 그리고 코로나19의 차이, 그것이 알고 싶다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의 생성에서 소멸까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증상을 동반하는 감기, 독감, 폐렴 등과 구분해 예방하고,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현 상황에서 우리가 파악하고 명심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 이상 증세가 서서히 드러나는 감기, 갑자기 아픈 독감



오래 겨울에서 새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유행하는 감기는 '약이 없는 병'으로 통한다. 무려 약 200종 이상의 바이러스가 원인인 까닭이다. 보통 성인은 연 2~4회, 소아는 6~10회에 걸쳐 걸릴 만큼 노출이 빈번한 이 병은 공기 중에 떠다니던 바이러스가 코나 목에 안착한 지 1~3일 만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 가장 흔한 증상은 콧물이나 코 막힘, 기침, 목의 통증, 근육통 등이다. 대체로 열이 없거나 미미하나 아등은 두드러지는 발열 증세를 보일 수 있다. 감염 바이러스 별로 약이 존재하지 않기에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를 진행하며 대개 자가 치유로 낫는다. 그러나 ▲10일 이상 아프거나 증상 악화 ▲39도 이상의 고열 ▲식은땀과 오한 ▲복통·두통이나 구토 ▲호흡 곤란 등이 일어난다면 일반적인 감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우리에게 독감으로 익숙한 인플루엔자(Influenza)는 A·B·C형으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C형을 제외한 두 형태가 전염성이 높으며, 변이를 잘 일으키는 A형은 지난 2009년 유행한 신종 플루와 같이 크게 퍼지는 바이러스의 90%를 차지한다. 서서히 아픈 감기와 달리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 피로 등의 전신 증상이 갑자기 생기면서 호흡기 문제가 일어나는데 미리 백신을 투여하면 70~90% 예방할 수 있다. 단, 그 효과는 1년에 불과하니 해마다 접종하길 추천한다.

### 폐렴은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해...올해 팬데믹에 빠진 코로나19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폐에 바이러스나 곰팡이가 침입해 생긴 염증인 폐렴은 호흡 시 통증을 느낄 수 있다. 또, 가래 배출, 호흡 곤란, 기침 등과 신체 전반의 증상을 호소한다. 감염을 일으킨 균을 먼저 확인한 다음 적합한 항생제로 치료하는데 약에 대한 내성이나 합병증이 없으면 10~14일 사이에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직접 숨쉬기 어려운 중증 환자는 기계를 이용한 치료가 불가피하다. 참고로 독감에서 발현하거나 폐렴균으로 인한 폐렴은 백신이 존재한다. 비록 완전한 방어는 아니지만, 심각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미연에 대비한다면 안심할 수 있을 터다.



현재 국내 확진자만 9,137명(20.3.25. 기준)에 달하는 코로나19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이다.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해 전염하며 1~14일(평균 4~7일)의 잠복기를 거쳐 37.5도 이상 발열, 기침, 호흡 곤란, 폐렴 등으로 발전한다. 한편, 드물게 무증상이거나 자가 치유한 경우가 있어 더욱 세심한 관찰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올해 3월 팬데믹(Pandemic, 질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며 빠른 확산을 우려하고 있는 이 질환은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없다. 만약 개발을 완료해도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전망이다. 다만 항생제와 에이즈, 말라리아 등에 쓰는 약을 병행하는 방법이 다소 효과를 보이는 추세이기에 희망은 남아 있다.

### 전염 줄이는 행동의 생활화가 지역과 사회를 살린다



앞서 소개한 네 가지 호흡기 질환의 공통점은 전염성이다. 게다가 감염자와의 접촉이나 위생 불량으로 증상이 더욱 악화한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예방법은 간단하면서도 명료하다. 우선 외출이나 기침·재채기 후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한다. 흐르는 물에 비누 거품을 내 30초 이상 구석구석 닦는 게 포인트다. 만약 여건이 충분치 않을 시 세정제를 구비해 틈틈이 소독한다. 평소 다양한 장소나 사람과 접촉하는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눈을 비비는 행동 역시 피한다.

또, 몸에 이상이 있으면 되도록 휴식을 취하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선 마스크를 쓴다. 기침 시 고개를 돌리고 옷소매로 가리는 건 물론이다. 더불어 환절기마다 유행하는 질환의 백신 접종을 생활화한다. 특히 지병이 있거나 노약자라면 병에 걸렸을 때 예후가 현저히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경 써야 한다.



덧붙여 코로나19는 숨길수록 대규모로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외국을 다녀왔거나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지 않다면 자가 격리로 접촉자를 줄인 다음, ▲가까운 선별 진료소나 관할 보건소 ▲지역콜센터 120 ▲콜센터 1339 등에 연락해 검사와 일련의 조치를 따르자.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모임이나 집회 등 많은 이가 모일 기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자제하도록 한다. 각 업종은 일시적 태스크군우 활성화와 위생을 위한 규칙 수립에 동참하고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할 터다.

호흡기 질환의 발 빠른 예방과 대처는 결국 현명한 판단에 달려 있다. 개인과 사회가 힘을 합해 하루속히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본다.



### 인용 출처

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 감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6577&cid=51007&categoryId=51007>
2. 국가건강정보 의학포털 - 독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20026&cid=51004&categoryId=51004>
3.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 폐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6619&cid=51007&categoryId=51007>
4.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http://ncov.mohw.go.kr>

나를 더 스마트하게 해주는  
Self 인재개발 퀴즈!

Quiz

국가인재원은  
2020년 3월 21일 개원 00주년을 맞았다.  
몇 주년일까요?

00 주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발행하는 웹진 <NHI Live>  
대표 정책부터 행사, 이슈, HRD 소식에 이르기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최신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소식지입니다.



정답을 맞힌 7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보내드려요!

응답기간

2020.4.1(수) ~ 2020.4.30(목)

응답하기

< NHI Live 36호 퀴즈 당첨자 명단 >

임\*하, 김\*경, 박\*현님  
축하드립니다.